

월간 범어교회보 Vol. 441

늘 푸른 숲

2026. 3

예수님과 함께 읽어내는, **범어의 리딩저저스**

고등부 대만 단기선교

복음의 열정과 환대를 경험하며

복지(福祉), 얼굴과 발의 여정

김규섭 목사 인터뷰

여호와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고난
받는종
예수
그리스도

THE SUFFERING SERVANT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예복에 합당한 삶



이지훈 담임목사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섬기던 담임목사님께서 목사 가운을 입혀주셨을 때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가운을 입는 순간 부족한 인생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중의 하나는 예복입니다. 입대하면서 군인이 되지 만 군인이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순간은 군복을 입는 순간입니다. 군복을 입을 때 군인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입느냐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을 옷 입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자격 없는 자들이 자신들이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고서 예복을 입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당시 관례상 예복은 잔치를 베푸는 자가 주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음에도 왕이 초대한 잔치에 왕이 허락한 예복을 입고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린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생들이었습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들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는 예복에 합당하게 살게 됩니다. 사복을 입었을 때와는 달리 그 예복에 맞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통해 전혀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즉 거룩한 삶은 구원을 낳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이 낳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나아가 내게 과분한 옷을 허락해 주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3월이 시작되며 교회의 많은 교육과 훈련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할 것입니다. 범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육과 훈련과 무엇보다 [리딩저스]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옷’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친밀해짐으로, 예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을 열며

따스한 봄기운이 차오르지만
삶은 아직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골짜기가 이어지고,
두려움과 실망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기도에 마음을 모으고,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에 마음을 비추다 보면
얼었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느새 부활의 새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결코 멈출 것 같지 않던 시련의 바람과 폭풍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 안에서 곧 잠잠해질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하며
어둠 속에서도 말씀은 더욱 선명한 빛이 됩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오듯,
삶의 어려움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역전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다짐하는 3월, 새로운 희망과 회복을 맞이합니다.

• 조성희A 집사(교회보팀)



여호와께 돌아가자



2026 March | Vol. 441

CONTENTS

- 02 포토에세이
- 03 목양칼럼
- 04 3월을 열며 _ 조성희A 집사
- 05 목차
- 06 리딩지저스 | 자녀와의 동행, 리딩지저스 _ 김성애 집사
- 07 리딩지저스 |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 리딩지저스 _ 강재구 집사
- 08 리딩지저스 | 하나님을 믿는 확신의 통로, 리딩지저스 _ 이해정 성도
- 09 단기선교 | 대만 단기선교의 여정 _ 이현기 집사
- 10 단기선교 | 선교가 될 수 있을까? _ 김시현 학생
- 11 단기선교 | 대만 단기 선교를 다녀오며 _ 김애린 학생
- 12 청년부 | 나를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며... _ 고규원 청년
- 14 내 영혼의 찬양 | “Way Maker” _ 고재호 집사
- 16 나의 한 구절 | 하동균 전도사
- 18 120주년 | 금요초청예배, 그 설레임과 은혜로의 초대 _ 이지훈 담임목사
- 19 120주년 | 복음의 열정과 환대를 경험하며 _ 손만근 목사
- 20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 Reading에서 Leading으로 _ 윤병한 전도사
- 21 소년부 겨울성경학교 |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_ 김효관 집사
- 22 공감의 장 | 복지(福祉), 얼굴과 발의 여정 _ 임병하 장로
- 24 인터뷰 |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_ 김규섭 목사
- 27 책 소개 | 산책(冊), 우리 같이 걸을까요?
- 28 행사단신 | 2월의 범어
- 30 범어 ‘인(人)’의 얼굴 / 범어범어
- 31 범어동정 / 행사 안내

제441호 | 발행일 2026년 3월 1일

발행인 이지훈 | 편집인 권오중 | 2026년 교회 표어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주소 42083 대구 수성구 청호로84길 71 | <http://pomo.net>

Tel. 053) 667 8800 | Fax. 053) 667 8888

예수님과 함께 읽어내는, 범어의 리딩지저스

자녀와의 동행, 리딩지저스

올 한해 전교인 성경통독인 ‘리딩지저스’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꾸준한 홍보와 독려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통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면서 공동체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연말까지 ‘성경 1독’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등부 어린이와 함께하는 리딩지저스는 마치 불신자를 부흥회에 데려가야 하는 것 같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책 읽어주는 것은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도 통독하는 것은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앉지만 있는 듯 전혀 집중을 하지 않는 아이에게 퀴즈를 맞히면 칭찬 도장을 찍어주고 칭찬카드 한 장 가득 채우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했더니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처럼 고집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어보고 싶어요”
“구약은 무서워요”
“도피성이 기억에 남아요. 이름이 재밌어요”



꽤나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열심을 보입니다. 아직 아이스크림이 통하는 나이라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달콤한 시간을 보낸 아이의 순수한 대답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걸으신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와 함께하는 리딩지저스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매 순간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리딩지저스를 통해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평생의 습관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말씀을 함께 읽는 이 시간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의 빛을 의지하며 걷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김성애 집사(교회보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 리딩지저스

저는 지금까지 성경 1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부끄러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말씀만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기관모임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의 권면으로 성격 통독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읽다가 즐기기도 하고, 빼먹는 날도 많아지고, 읽고 나서도 이해가 되지 않은 채로 연말까지 구약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 ‘리딩지저스’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분들께서 친절할 설명으로 권면해 주셔서 올해는 처음으로 1독을 할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목자로서 사랑방원들에게 매일 읽을 분량을 전하며 권면하는 것이 부담되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며 1월 12일,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읽어가니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내용은 같았지만,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거짓과 배신, 불신이 가득한 구약의 말씀이 불편했었는데 이상하게도 평안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엄격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해 세상을 지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지독한 사랑임을 느끼며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게 됐습니다.

리딩지저스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 성경 통독의 최대 위기라는 레위기도 은혜 속에 잘 지나가고 벌써 신명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방원들이 완독 댓글을 달아주고 있음에 감사하며, 3월 사랑방 모임에서 은혜를 나눌 생각에 벌써 설레기도 합니다.

리딩지저스로 인해 달라진 점은, 한 주간의 말씀을 읽고 아내와 자녀들과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중학생인 첫째, 초등학생인 둘째, 셋째까지 각자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그 모습만 봐도 은혜이며 감동입니다. 또한 또래 동역자들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한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삶에 적용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출근하며 오디오 바이블을 듣고 저녁에는 직접 읽으며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딩지저스를 통해 가장 나누고 싶은 점은, 말씀을 읽을수록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훨씬 많이 남았지만, 분량을 채우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뜨거워지는 시간을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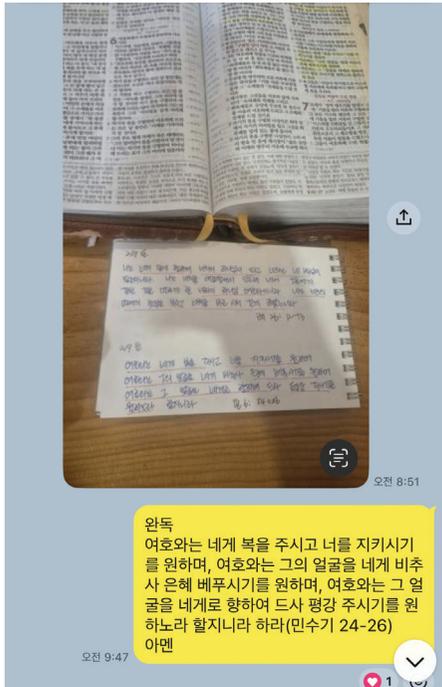
• 강재구 집사(디모데청년회)



하나님을 믿는 확신의 통로, 리딩지저스

자녀의 사춘기를 맞닥뜨린 순간, 저는 준비되지 않은 채 큰 파도에 휩쓸린 사람 같았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며 종교는 수행과 수양이라 여겼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손에 이끌려 범어교회에 오게 되었고,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심보다 ‘살기 위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교회 양육 과정과 세례 교육을 거치며 조금씩 눈이 열렸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접하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막막했던 제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확신으로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특히 ‘리딩지저스’를 통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게 되면서, 말씀은 더 이상 딱딱한 글이 아니라 살아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의 막막함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덕분에 불안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아이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함보다 확신이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경험한 이 평안을 언젠가 아이들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제 삶을 맡기며, 언젠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딩지저스’로 사랑방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26:12)

여호와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9)

하루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목자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방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은 제 마음을 붙들어 주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리딩지저스’의 말씀으로 하루하루가 풍성해지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삶이 말씀 안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사랑방 안에서 동행하겠습니다.

• 이해정 성도(바울청년회)

대만 단기선교의 여정



청소년 대만 단기선교의 시작으로 작년 12월, 16명의 학생이 “WAVE” 선교 훈련을 받았고 그중에서 13명의 고등부 학생이 단기 선교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지 선교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만 경미여고 학생 초청 전도 잔치와 주일예배 인도, 공원 버스킹을 하는 것을 요청하셨고, 모든 아이들은 각자 두세 개 정도의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대만에서의 사역 첫째 날,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와 대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오후에 경미여고 학생 30명을 교회로 초청하여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전도 잔치를 열었습니다. 레크레이션과 찬양, 댄스,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대답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간증,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대만 학생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김밥, 떡볶이, 어묵을 준비하여 한국 음식을 함께 먹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주일예배를 저희 단기 선교팀이 인도하였습니다. 찬양 인도와 기도, 특송, 말씀을 전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미리 준비한 한국식 불고기와 음식을 성도님들과 맛있게 먹을 때는 천국 잔치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교회에서 가까운 공원에 가서 대만 찬양과 한국 CCM을 부르고, K-Pop 댄스와 CCD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버스킹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은 대만 곳곳을 아이들이 조를 짜서 다녀보고 관광지인 ‘에스지’를 둘러 문화 행사를 가졌고, 교회에 가서 선교사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고등부가 단독으로 간 첫 단기선교라 더욱 뜻깊었고, 우리 학생들과 경미여고 학생들, 생명나무교회와 범어교회가 연합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일정을 안전하고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현기 집사(고등부 교사)

선교가 될 수 있을까?

이번 대만 단기선교는 ‘이런 나도, 이런 방식도 선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어려움보다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더 마음이 쓰입니다. ‘사랑하라, 살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오래 남아 있었고, 작년 한 집회에서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는 메시지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몇 달 뒤 단기선교 모집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실 것 같다는 믿음으로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던 중,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흔들림을 겪고 있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깊이 상처받고 자책만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할 힘을 잃은 제게, 현지 교회 주일예배에서 들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은 깊이 다가왔습니다. 고난은 이유 없이 찾아오기도 하며,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하나님은 제 닫힌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아끼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고 눈물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사랑할 힘이 생겼습니다.

이후 현지에서의 사역은 제가 생각하던 선교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여고생 초청 잔치와 거리 버스킹을 준비하며 앞서 말한 선교 방식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다. 버스킹 중 번역기를 통해 “훌륭하다”라고 말해주신 할아버지, 호기심을 보이며 함께 웃던 경찰의 모습 속, 찬양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교가 특정한 방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순간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하나님은 저를 회복시키셨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가진 것을 나누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결단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 김시현 학생(고등부)



대만 단기 선교를 다녀오며

저는 처음 선교를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무엇보다 대만에 가서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후회하더라도 무엇이든 경험해 보자는 마음으로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앞두고 훈련을 받으며 선교지에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배우고, 이번 선교를 통해 신앙을 회복하고 제 꿈에 대해 조금 더 분명한 방향을 찾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만에 도착해 생명나무 교회에서 선교사님의 말씀과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중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깊이 남았습니다. 이후 선교팀과 함께 대만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전하는 찬양과 말이 언젠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경미여고 초청 잔치가 있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이 시간이 주님께서 일하신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드린 주일 예배는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만 성도님들께서 설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모습을 보며, 말씀이 그분들께 얼마나 귀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당연하게 여겨온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주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제 마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선교를 하러 떠났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 김애린 학생(고등부)



나를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안녕하세요. 청년1부 47대 고규원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2026년 겨울의 시간 속에서 가장 뜨거웠던 청년 1부 겨울수련회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김수연 목사님께서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련회 첫날, 조원들과 만나 인사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보는 조원들이라 어색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며 첫날 집회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경주로 이동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조원들과 같이 ‘리딩지저스’를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 나눔 카드를 통해 질문 하며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플리웍스 대표님이신 박수철 집사님께서 ‘부르심과 보내심: 여전한 문제’를 주제로 청년들에게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조원들과 협동하여 코이(동아리) 부스를 돌아다니며 게임을 하고 설립 120주년 범어교회 퀴즈도 함께 맞히고 방 탈출 협동 게임을 하여 조원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특히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날은 목사님께서 ‘Call: 그물을 던지는 것’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어두운 곳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인생이 아닌 그 말씀 위에 서는 인생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첫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목사님께서 ‘Walk: 물 위를 걷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진짜 괜찮아?’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설교 말씀을 통해 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무서워하여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문제와 악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하나님 발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제공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즉시’ 나를 도우실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질문이 해결되고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목사님께서 ‘Question: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설교를 통해 사명이 우선시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여 그 소명이 사명을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수련회 이후 나를 보내실 자리인 가정과 학교로 나아가 나의 소명을 기억하며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 어느 수련회보다 더 뜨거웠던 이유는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회 시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수련회를 통해 ‘나의 주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라는 2026년 기도 제목에 더욱 큰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고규원 청년(청년1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나의 하나님, “Way Maker”

초등학교 1학년 때쯤부터인가, 아버지는 평소 뒤척임 없는 나를 자주 밤에 옆에 누이고서는 멋진 목소리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타향살이” 같은 노래를 불러주시며 가르쳐 주시곤 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한국 전쟁의 포화를 피해 혈혈단신으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신 나의 아버지는, 낯설고 광야 같은 타향 땅에서 홀로 가정을 일구며 살아가야 했다. 그곳에서 겪어야 했던 지독한 외로움과 고향과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아버지는 노래로 달래셨을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시며 엄마와 자식들을 지키고, 힘겨운 삶의 질고를 이겨내며 다시 힘을 얻으셨을 것이다.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가락 속에 담긴 눈물을, 세월이 흘러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아버지의 심정으로 느껴낸다.



대학생 시절, 유난히도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대학생선교회에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사명을 품고 기도와 찬양으로 시간을 보냈다. ‘실로암’을 목놓아 부르며 민족 복음화에 목숨을 걸겠노라 다짐하던 시절이었다. 기타를 치며 캠퍼스 잔디에 앉아 불렀던 그 수많은 찬양들과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수도 없이 들으며, 다가올 신세계를 향한 웅장한 꿈을 그리기도 했던 때였다. 대학 졸업과 함께 직장에 들어가서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즐겨 불러 어느새 나의 18번이 되었다.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라고,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고 그렇게 읊조리며 스스로를 다잡곤 했다. 그러는 사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마침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삶은 기대하고 꿈꾸던 모습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사업을 하며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방이 막막한 벽과 절벽처럼 느껴지던 순간, 코로나까지 겹쳐 진행되던 모든 프로젝트가 막혀버렸을 때, 그때 내 영혼을 붙잡은 찬양이 바로 ‘Way Maker(길을 만드시는 분)’였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찬양을 수백 번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부르고 또 불렀다. 내 능력으로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드시고 Miracle Worker(기적을 행하시는 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노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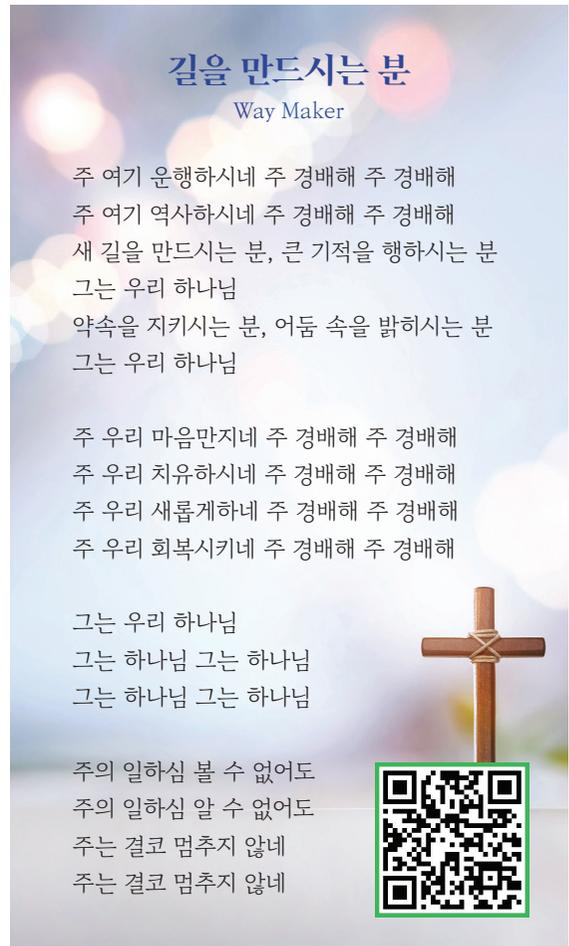
지금도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노래한다. 돌아보면 그 모든 고난의 시간조차 은혜였다. 쓰러지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격려하시고 손잡아주신 하나님은 진정한 Promise Keeper(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시다. 세상은 계약을 어기고 약속을 저버릴지라도, 부모님이 믿으셨던 그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Light in the Darkness(어둠 속의 빛) 되신 하나님이 은혜의 주체임을 고백하게 되었다.

이제 2026년 새 아침을 맞으며, 살아온 여정보다 더욱 넓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 본다. 죽음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아픈 이들,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 가난으로 인해 사랑조차 나누지 못하는 메마른 영혼들, 파괴된 관계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의 젊은이들까지. 하나님께서 참된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특히 두 차례 다녀온 에티오피아의 그 해맑은 눈동자들에게, 킬리만자로의 찬 바람보다 더 시린 현실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들에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이제부터는 삶의 여정을 더욱 정갈하게 다듬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19)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 6장 8절)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동시에 담대하게 만든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교만할 수 없고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율법주의자는 교만하거나 절망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기에
참된 자신감을 가진다.

「센터 처치 / 팀 켈러」



“나를 보내소서”

이 결단으로 시작된 길이지만 현실의 사역은
늘 나의 한계를 마주하는 일의 반복입니다.
때로는 업무의 무게에, 때로는 부족한 역량에 치여
처음의 그 뜨거웠던 소명이 무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내게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먼저 보게 합니다.
그것은 나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어더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서게 하려는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사역의 자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나를 용납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동균 전도사

금요초청예배, 그 설레임과 은혜로의 초대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행사의 대단원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 첫 순서로 매달 마지막 주 금요 예배시간에 우리 교회를 거쳐가셨던, 그동안 우리가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기념 초청 예배로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면을 통해 담임목사님의 초대 말씀과 지난 1월 30일 첫 설교자로 초청받아 말씀 전하셨던 손만근 목사님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 진행될 전반기 120주년 기념 금요초청예배의 강사분들을 소개합니다.

**범어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금요초청예배**

2026. 2. 27(금)~6. 26(금) 오후 8시 | 예루살렘채플

		
2.27(금) 이영배 목사 서울 성일교회	3.27(금) 조보섭 목사 서울 성현교회	4.17(금) 고용기 목사 의왕 평안교회
		
5.29(금) 이진영 목사 서울 내곡교회	6.26(금) 신성욱 목사 아신대학교	

범어교회의 120년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오신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말씀을 전해 온 수많은 사역자들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에 1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서 자라 사역자가 되신 분들과 본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분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예배에 초청하고자 합니다. 출신 교역자 초청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 이지훈 담임목사

복음의 열정과 환대를 경험하며

범어교회 설립 12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성회에 부족한 사람을 메신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지훈 목사님과 당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범어교회에서 사역했던 5년의 시간은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마주한 성도님들의 눈빛 속에서 변치 않는 복음의 열정과 환대를 경험하며,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와 영적 에너지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금요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120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긴 이후,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도 범어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미스바의 신앙’이 계승되었기 때문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 범어교회의 새로운 120년을 함께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되었습니다. 기도의 함성이 성전을 가득 채울 때, 우리 삶의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도 범어교회를 굳게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범어교회가 대구 땅을 넘어 열방을 향해 ‘미스바의 회개’와 ‘에벤에셀의 찬양’을 전파하는 영적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영적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건강한 공동체로 더욱 비상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범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 안동에서 **손만근** 목사 드림

손만근 목사 | 재직 : 2018년 1월 ~ 2023년 1월
사역 : 2018~2020(교구), 2021~2022(고등부)

Reading에서 Leading으로

겨울의 끝자락에서 진행되었던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는 오랜 기간 해오던 QT 캠프가 아닌, 올해 온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인 '리딩지저스'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보다 이른 시간인 9시에 모여서, 아직 잠이 덜 깬 친구들의 아침잠을 깨우고 강의에 집중하기 위해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Reading에서 Leading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강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리딩지저스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내어 말씀 속

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의를 통해 우리가 성경 통독을 왜 해야 하는지, 리딩지저스는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읽어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아직은 초등부가 낯선 친구들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리딩지저스 통독 분량 중 핵심 장인 신명기 30장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읽기에 앞서, 신명기 성경 해설을 함께 읽어보며 오늘 읽을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 모든 순서를 마치고 기도회를 통하여 리딩지저스로 '성경 1독'까지 결단하는 기도와 성경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읽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 윤병한 전도사(초등부)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올해 소년부 겨울성경학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예배, 인생 네 컷 컨테스트, 체육관 운동회, 그리고 학부모 간담회까지 모든 순서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진지한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준비 초기에는 수성노회 교사부흥회에서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수련회나 성경학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양교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품고 야심 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일이 임박하여도 신청이 저조하여 노심초사하였는데 마지막 순간, 감사하게도 신청이 증가하여 많은 소년부 아이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찬양과 설교와 기도회로 예배를 2시간 계획하였을 때는 과연 5, 6학년 아이들이 긴 예배 시간 동안 집중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을지 염려가 많았습니다. ‘혹시 지루해하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저를 우리 주님께서서는 보란 듯이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막상 예배의 현장에서 아이들은 기대 이상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모든 사역은 우리의 계획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섬김으로 동역해 주신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와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 김효관 집사(소년부 부장)



복지(福祉), 얼굴과 발의 여정

복지위원회 ‘대외심방팀’ 최 권사님께서 연초 지원 돌봄에 함께하자고 권하셨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단순히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직접 찾아뵙고 대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정한 날, 총무 집사님과 최 권사님 내외분까지 넷이서 대구 수성구 관내 10가정을 방문했다.

수성구청에서 안내받은 주소지의 주인공들은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었다. 비록 작아도 자기 소유 아파트가登記되어 있거나 서류상 부양할 자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응당 받아야 할 사회적 보호에서 소외된 이들이었다. ‘복지 사각지대’라는 차가운 행정 용어 뒤에는 정신 질환을 앓는 거구의 아들을 위해 생업을 포기한 채 녹록한 방을 지키는 어머니가 있었고, 연락 끊긴 자식 대신 손주들을 노동으로 길러내시는 할머니의 굵은 등이 있었으며, 뇌병변 장애로 입김이 새어 나오는 냉방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부자의 고단한 삶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기꺼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에 동참한 그들은 “아무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데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날이 따스해지면 손주를 꼭 교회에 보내겠다던 그 다짐 앞에서, 기도는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존재 자체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은 나에게 말을 건다. 그것은 ‘나를 죽이지 마라’는 명령이자, 동시에 ‘나를 돌보라’는 부름이다”라고 했다. 약에 취해 잠든 청년의 얼굴만이라도 꼭 보고 가야 한다던 최 권사님의 강권은,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는 현장에서 비로소 수만 년 이어온 인간적 교감이 작동함을 아셨기 때문이었으리라.





복지(福祉)의 한자를 새삼 톺아본다. ‘보일 시(示)와 가득할 복(福)’ 그리고 ‘보일 시(示)와 발 지(止)’.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득함을 마주하여 보는 것이요, 그분의 보살핌이 우리의 발길 닿는 곳마다 미치게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결국, 복지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얼굴을 두고, 그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발을 내딛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문재 시인은 시 ‘오래된 기도’에서 그믐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이 기도가 된다고 했다. 누군가의 얼굴을 간절히 떠올리고 그 삶의 어두운 그늘을 묵묵히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기도로 받으실 줄 믿는다.

어제는 복지위원회에서 설 명절 선물을 90여 가정에 나누었다. 전날 매천시장에 가서 도매가로 물건을 고르 시던 최 권사님께 “쿠팡으로 사면 편한데 왜 고생을 하시냐”고 물었다가, 한 푼이라도 아껴 한 가정이라도 더 나누기 위함이라는 대답에 부끄러움과 감사가 교차했다. 이 역시 복지의 의미 그대로, 복을 가득 담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을 미치게 하는 시간이었다.

교회의 복지는 우리의 얼굴과 발이 주님의 시선을 정확히 따라가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힘과 지식을 동원하여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도 임하게 하는 이 거룩한 행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임병하 장로(복지위원회)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올해 인터뷰 코너는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계기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담고자 합니다.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세 번째 순서로 청년 2부를 섬기시는 **김규섭 목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Q. 목사님의 유년 시절은 어땠는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나요?

A.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셔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며 여름·겨울성경학교도 참석하고 눈물 흘렸던 경험도 있어요. 아버님이 경찰이셔서 인사이동으로 몇 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살다가 목동으로 가서 20살 쯤까지 살았어요. 이후에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남양주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친가와 외가가 대구라 명절은 항상 고향 간다고 대구로 왔답니다. 그런데 대구 와서 살아보니 ‘대구에서 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구가 고향이야?’라고 하시더군요.

Q.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계기는?

A. 어릴 때 제가 교회 가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지금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위에 눌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종의 조건 반사처럼 무섭단 생각이 들면 교회에 갔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어머니가 교회 가면 용돈을 주셔서 용돈을 받기 위해 교회에 갔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자원해서 해병대로 입대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 여단 정문 근무로 야간 근무를 서는 날이었어요. 그 앞에 교회 십자가가 눈에 들어와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령도에 서만 나를 내보내 주신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1년 뒤에 대전으로 차출되어서 백령도에서 나왔답니다. 그렇지만 전 그렇게 기도한 걸 까맣게 잊어버리곤 대전으로 와서 편해지니까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병장 때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려는데 한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읽고 있던 책이라 안 주시려는 걸 뺏다시피 해서 가져가 읽었어요. 500페이지 가깝게 되는 분량을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그 밤에 부대에서 잠을 자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꿈을 꿔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 소리에 너무 무서워서 펄펄 울면서 깬습니다.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울어도 울음이 그치지 않아 그 자



리에서 ‘나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Q. 그러면 전역 이후에 어떻게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나요?

A. 전역 후엔 집이 있는 남양주의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엔 청년이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집사님들 따라 주일 학교 교사도 하고, 기도원도 따라다니고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8명의 청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학부 때 전공이 음향이었어요. 작은아버지가 미국에서 음향 스튜디오를 운영하셨는데 졸업하면 미국 가서 일하려고 준비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만 살다 보니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왔어요. 제가 외향적인 사람이라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신앙생활을 다시 하면서 예전 친구

들과 어울리면 신앙이 흔들릴 거 같아 모두 단절하고 지냈거든요. 당시엔 지혜롭지 못했지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기자 강남 금식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엄청 컸을 때라 3일 금식기도를 세 번 정도 했는데, 마지막 날 밤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3일, 20일, 40일 이렇게 금식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말씀 앞에 제가 확 깨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신학으로 방향을 틀어서 집 가까운 한국성서대학교로 편입했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는 초교파 신학교여서 여러 교파의 신학을 접했는데 그게 제게 도움이 되었던 생각도 듭니다. 당시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당시에 칼뱅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다’ 싶어 총신 신대원으로 진학했습니다.

Q. 신학의 길로 접어들고선 우여곡절이 없었나요?

A. 그럴리가요! 총회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당시 총신대학교의 여러 문제를 접하며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특히 목회 상담학 수업에서 교수님과 상담을 4회 하는 게 있었는데, 교수님이 저는 8회 정도 해야겠다고 하시





더라고요. 그 8회의 상담을 통해, 저의 고민을 정리하고 평범하게 성도로 살아야겠다 싶어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때가 삼십 중반의 나이였어요. 특별한 재능은 없었지만,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출판 영업하는 곳에 취업하여 대형마트에 책을 납품하러 다녔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를 상대하다 보니 주일을 지키기 어려웠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겠다 싶어 퇴사하고, 교회 교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오직'이라는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도 즐겁지 않아 밤마다 책을 읽었어요. 그때 읽었던 책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들입니다. 지금도 좋아하는 책인데, '하나님 나라'와 '내가 사랑하는 복음'이란 책을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울다가 아내랑 얘기를 나누며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곳이어야겠다 싶어 2016년에 다시 신대원 2학년으로 돌아갔습니다.

Q. 이후에 대구의 범어교회로 오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전도사 사역은 수원제일교회를 거쳐 낮은마음교회에서 5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그 이후 전임 사역 자리를 찾아서 나오게 되었어요. 마

침, 대구의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친구가 같이 사역하자고 해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대구로 가기로 했는데, 마침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그 교회로 가지 못했어요. 그때 범어교회에서 공고가 났고 지원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구와 찬양 사역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청년들에 대한 맘을 주시더라고요. 3개월 정도를 기도하는 중에 단기 선교팀별로 교역자가 함께 가는데 마침 제가 청년 2부와 함께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어요.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서 교회에 말씀드렸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청년2부 담당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은 참 신묘막측하더군요.

Q. 청년 2부를 위해 성도들께 부탁드립니다. 게 있다면?

A. 서로에게 맞는 귀한 믿음의 배우자들을 잘 만나길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게도 하나님이 귀한 선물 같은 아내와 아들 셋(중3, 초6, 초4)을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도 이런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평생을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길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리 교회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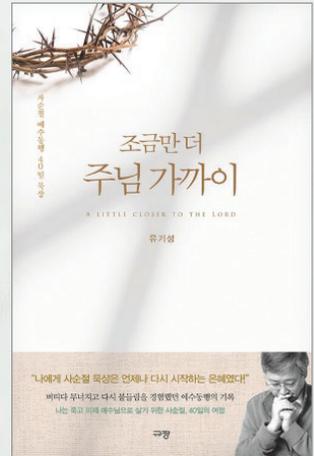
우리 같이 걸을까요?

산책(冊)

조금만 더 주님 가까이 (유기성, 규장, 2026)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리고 무너진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수많은 볼 것에 빼앗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순절 묵상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로 더 향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 40일의 여정 가운데 하루 한 걸음씩, 더 말씀 앞에 머물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한결같이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였던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며 외쳐야 할 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끝내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 中



상처의 쓸모 (유수경, 책과이음, 2025)

나의 상처는 나와 같은 일을 당한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서 상처를 극복하는 일이 그렇게 말로 다할 수 없이 아픈 일일 지도 모른다. 상처의 회복은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완성된다. 누군가를 살리는 그 자리에서 나의 상처는 회복되고 새살이 돌아난다. 회복은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스위스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은 “모든 치유자는 상처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 상담사, 심리치료사 등 공감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파봤기에 다른 이들의 결핍과 아픔도 잘 보이고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지인들에게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다. 저마다 지닌 상처의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누군가 자신처럼 아파하고 있다는 연결 의식만으로도 그들의 고통은 크게 경감되는 듯 보였다.” 본문 中



2월의 범위

이 외에도 많은 행사가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pomo.net>



1일(주일)~4일(수) 갈릴리채플과 경주 컨스팅리조트에서 김수연 목사를 강사로 청년 1부 겨울수련회(주제: Call & Sent 부르심과 보내심, 뵤전 2:9)가 있었습니다.



2일(월)~4일(수) 대구 수성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부흥회(강사: 부산 수영로교회 이현우 목사)가 대구동신교회에서 있었습니다.



9일(월)~12일(목) 새벽이슬 청년부의 국내 전도여행이 제주도 나무와 숲학교(기독교대한학교)에서 있었습니다.



8일(주일) 오후예배 시간에 제 55회기 전국대회(성경교사)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20일(금)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시간에는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온세대기도회가 예루살렘채플에서 있었습니다.



21일(토)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읽기'를 주제로 2층 초등부실에서 있었습니다.



21일(토) 소년부 겨울성경학교가 '사랑 중에 사랑'을 주제로 지하 1층 갈릴리채플에서 있었습니다.

범어‘인(人)’의 얼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

성도의 두 팔 높이 든 경배가 하나님께 닿을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의 미소 짓는 얼굴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범어범어(泛魚凡語)

“사람들은 시간표를 성공으로 채우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핍으로 채운다고 한다. 그러한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다” 사랑방 나눔 중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지 않는다면, 세상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가르칠 것이다. (보디 바우함) 온세대기도회 초대장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자를 믿었을 것이다.(프리드리히 니체) 고등부 설교 중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은 새로운 적토마를 구하기 보다, 하나님 품에 안겨 활공하는 것이다”

주일 설교 중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백할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자백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자백은 용서 받을 것을 확신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일 설교 중

“선교지에서 보내게 될 1년이 두렵고 떨리기보다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질그릇같은 저를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은 해로 채워주실것이 기대됩니다”

선교봉사자 파송식

범어동정(泛魚動靜)

한 달 동안 범어인의 상황과 이동

■ 처음 나온 아기



하라는 (하혁, 정은유)



이하울 (이성희C, 이승아)



이세아 (이동영, 김재이)



정세하 (정영흔, 박지원)



박유준 (박광래, 김효진C)

■ 결혼

- 이영태 집사, 오창화 집사의 장녀 이하은양: 2월 7일(토) 11:30 빌라드지디 청담
- 김규완군과 김예지양: 2월 7일(토) 3:30 로터스 101
- 이종일 집사, 손진 집사의 장녀 이수아양: 2월 28일(토) 오후 2:30 엘파소하우스웨딩

■ 출산

- 박지영 성도 득녀 (1/27화)
- 문지민 집사(류한 집사) 득녀 (2/2화)

■ 선교봉사자 파송

- 박가현(청년1부) : 캄보디아 웰컴센터 (2026년 3월~2027년 2월)

3월 교회 행사 안내

- 1일(주일): UPS 입학예배(오후)
- 8일(주일): 청년위원회 주관예배(오후)
- 14일(토): 학습 세례 문답식
- 15일(주일): 성례주일(학습, 세례, 입교식)
목자 헌신예배(오후)
- 22일(주일): 정기당회, 베드로 주관예배(오후)
- 27일(금): 120주년 목회자 초청-조보섭 목사
- 29일(주일): 종려주일, 세계선교위 주관예배(오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3월 30일(월)~4월 3일(금)

3월 주일학교 행사 안내

- 7일(토): 유치부 겨울성경학교
- 7일(토): 고등부 학부모 간담회
- 7일(토): 초등부, 중등부, 소년부 제자훈련 시작
- 14일(토): 유치부, 유년부, 고등부 제자훈련 시작
- 14일(토): 소년부 찬양 축제주일
- 21일(토): 영아부 제자훈련 시작
- 22일(주일): 고등부 야외예배
- 22일(주일): 영어예배부 수성못 버스킹

편집장 | 이영선C

부편집장 | 신규식, 여경진

편집위원 | 김동영, 김성애B, 김현성, 서정주

손명진, 이미경C, 이상진, 이창권

조성희A, 허윤정

사진 | 미디어위원회

디자인 | design studio Jabez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범어교회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범어교회보 | 1986. 5. 25 창간

26 상반기
어머니기도회

"믿음의 산을 오르다"

부모의 깊이가 자녀의 높이가 됩니다

어머니 기도회

일시

26.3.4~6.17

매주 수요일 10시

대상

범어교회 모든 어머니들

장소

지하1층 갈릴리채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4:13]